



“같이가요”

취약계층 복지 증진 따뜻한 공동체 실현

‘혼자’가 모여서 ‘같이’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든든함을 느낀다. 무언가를 향한 동기가 생기고 목표를 향한 추진력이 배가 되기 때문이다.

스스로 약자라 느껴본 사람들은 더 할 터.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31%를 넘어선 초고령 사회, 209세대 7백여 명이 다문화가족인 무주가 ‘더불어 함께’ 거리고 하는 이유인 것이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만4,000여 군민의 맞춤형 행복을 만들어 가는 곳으로 최근에 이용 대상과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기대도 커지고 있다.

무주군은 운영에 내실을 기해 취약계층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정감 넘치는 따뜻한 공동체를 실현하는 기반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가정 행복 일구고

무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화제다.

다문화가족정책 복지서비스를 실천하기 위해 2009년 2월 문을 열었던 곳이 지역여건과 정책, 수요자 특성을 고려한 가족전문 통합지원기관으로 거듭났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다문화가족들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서비스와 접근성을 확대하면서 일반 주민들도 함께 이용이 가능해졌다. 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공간이 된 것.

무주군에 따르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가족생활에 대한 이해증진과 관계 개선을 위한 가족 역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족 상담을 비롯한 가족 역량 강화와 자녀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가족봉사단을 운영하는 등 가족 친화분위기 조성에도 적극 나서 계획이다. 이외에 △다문화가족 방문서비스 진행 △다문화가족의 관계향상과 자녀성장을 위한 지원, 또 △결혼이민자 취업지원서비스와 △정착

단계별 지원 패키지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주민들은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어려움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 걸 느낀다”라며 “이웃들이 함께 배우고 나누며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다”라고 전했다.

▲아이도 함께 키우며

공동육아나눔터도 마련했다. 자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자녀 참여 형 가족 품앗이 활동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생애주기별 맞춤 교구와 도서를 마련해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자녀들의 사회성과 신체·정서적 발달을 돕기 위한 상시 프로그램과 부모·자녀 통합프로그램도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공동육아나눔터(이용 문의: 063-322-1130) 회원 자녀 30명(각 프로그램 당 15명)을 대상으로 하는 상시 프로그램은 상반기(3월~6월)에 유아체조와 종이접기를 실시하며 하반기(6월~11월)에는 구연동화와 촉감놀이를 연례에 맞게 진행할 예정이다.

양육부담 해소를 위한 부모교육도 실시해 호응을 얻고 있으며 체험활동 품앗이와 육아 품앗이, 등·하교 품앗이 등을 원하는 가족들이 뜻을 모아 결성된 자조모임 형태의 가족 품앗이도 운영 중이다.

현재 10그룹(20가정)이 참여 증으로 해당 유형에 맞게 월별계획서와 활동일지를 제출하면 그룹별로 월 3만 원이 지원된다.

이용 가족들은 “비슷한 연령대 자녀를 둔 부모들의 커뮤니티 공간이자 아이들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공간이 생겨 든든하다”라며 “공동육아나눔터가 활성화 돼서 안정적인 돌봄 문화가 조성되고 지역중심의 양육환경도 만들어졌으면 바랍”이라고 전했다.

**다문화가족에 이어
일반 주민도 이용 가능
공동육아나눔터도 마련
옛 군수 관사 활용 동지터**

▲살맛나는 무주 만든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곳에 동지터를 틈 것은 지난해 12월. 무주군이 구)군수 관사를 다문화가족 관련 시설로 활용키로 하면서 성사가 된 것.

여성가족부의 건강가정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결합된 형태의 통합센터 설치·운영의 무와 방침이 반영되면서 운영이 본격화됐다. 지난해 10월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필수 사업인 공동육아나눔터 공모에도 선정돼 복지증진 발판이 굳건해졌다.

무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대지 282.2㎡ 건물 251.14㎡)로 사무실과 공동육아나눔터, 교육장, 언어발달교실과 상담실 등을 갖추고 주민들의 건강 및 복지증진, 교육과 사회활동을 지원해 나가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난해 12월 열린 입주식.



체험활동



공동육아나눔터

▶ 장진원 센터장의 한마디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온 힘”

어느 때보다 건강한 가정이 절실하고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참다운 배려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가 자연스러운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고 조력자가 돼 줄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도



그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입니다. 모두의 공간이자 모두를 위한 조력자로서 지역과 국가 발전에 토대가 되는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다문화가족들이 2만 4천여 군민들 속에 당당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앞으로는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더욱 정성을 쏟을 계획입니다.

▶ 장호순 무주군 사회복지과장의 한마디

“센터 운영 내실있게 지원... 따뜻한 무주 실현토록 할 것”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쓰이고 있는 이곳은 당초 군수 관사로 쓰던 공간을 ‘주민의 주인’에 의한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관심을 모았던 곳이었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재탄생하며 가지게 된 가치는 그동



안 다문화가족만이 누릴 수 있었던 특별하고 유일한 복지서비스를 지역에 사는 모든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데 있다고 밝힌다. 이용 대상이 많아지고 폭이 넓어진 만큼 행복의 크기도 훨씬 커질 수 있게 된 거니까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내실있게 지원해 더불어 함께 살아 따뜻하고 정감 넘치는 무주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